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9일 무주군 설천면 라제동문 덕유정에서 전북·경북 SOC 공동건의문 채택 행사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최명규 전주부시장,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김충섭 김천시장, 이병환 성주군수 등이 채택문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 지역 미세먼지 감시 돌입

대기오염현상 원인 규명·저감방안 마련 나서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저감방안 등을 마련할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사진)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시는 19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박철원 시의회 부의장,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전북지방환경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에서 9번째로 구축된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모현동 2가 일원에 총면적 약 886.9㎡, 지상 4층 규모로 설립된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는 전북권 지역 미세먼지 등 고농도 대기오염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특성을 상시로 감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와 함께 미세먼지 유출입 경로와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특성에 대한 과학적 기반자료를 확보해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나선다.

지난해 환경친화도시를 선포한 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0개 분야, 50개 사업을 추진하며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매진해왔다.

그 결과 3분기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2㎍/㎥에서 올해 22㎍/㎥로 대폭 감소되어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 3순위로 꾸준한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 1순위로 올 1분기 29, 3분기 3위로 떨어졌으며 2분기의 경우 5위까지 대폭 하락한 바 있다.

이같은 성과를 위해 시는 상반기 노후 경유차 2,244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마무리하고 9억 원의 추가 지원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저감에 힘썼다. 또한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894대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53대 부착, 1톤 LPG화물차 126대 구매지원에 77억 원을 투입하는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대기배출사업장 476곳을 대상으로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상시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전북도, 전북지방환경청, 시·군 합동점검 및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운영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과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된 방지시설 개선 10억 원,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에도 나선다.



이어 전기승용차 150대, 전기화물차 43대, 전기이륜차 42대, 수소자동차 52대, CNG버스 13대 등 59억 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 있다.

국·도비 추가확보로 633세대에 가정용 저농도 보일러를 지원했으며 주요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등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업들을 추가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2억5,000만 원을 투입해 2,790톤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지급했고 폐파기를 활용한 농업부산물 비료화 사업을 166농가 대상으로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명품가로수길, 명상숲 조성, 나무 나누어주기 및 내 나무심기 등의 사업을 통해 올해 66만주를 심었고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노릴 예정이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대기배출사업장 476곳을 대상으로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상시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전북도, 전북지방환경청, 시·군 합동점검 및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운영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과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된 방지시설 개선 10억 원,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에도 나선다.

“동서 통하는 교통망 구축해야”

전북·경북 지사 공동건의, 정부 적극적 역할 촉구
전주~김천 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필요성 역설

국토의 균형 발전과 호·영남 간 원활한 교류, 화합 등 동서를 잇는 교통망 구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경북과 전북의 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전주-김천 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공동건의문 서명과 발표에는 양 지사를 비롯해 노선 경유지 지자체에서 최명규 전주부시장,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김충섭 김천시장, 이병환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신라제통문'을 건설하자는 굳은 의지를 담아 옛 백제와 신라를 잇던 무주군 설천면 라제동문 덕유정에서 열렸다.

전북과 경북의 자치단체장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철도와 고

속도로는 대부분 남·북 방향으로 건설되고 동·서 방향의 교통망은 매우 취약해 호·영남 간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역화합에도 장애가 됐다”며 “두 지역 주민의 역사적 숙원인 전주-김천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화합을 통해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경북도는 전주-김천 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동·서 교통망이 연결되면, 한서해안권과 한동해안권을 잇는 새경제벨트가 구축돼 지역 간 교류와 화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두 지역 간 이동 시 통행시간 단축, 비용절감 등 접근성 제고와 도시 간 연계기능 강화로 인한 국토균형발전도 기대된다.

전주~김천 철도는 전주에서 진안, 무주를 거쳐 김천을 잇는 길이

101.1km의 단선전철로, 사업비는 2조 3,894억원 예상되며,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에서 무주, 경북 성주, 대구 금호ICT를 잇는 길이 128.1km(4차로) 규모로, 투입예산은 4조8,578억원 정도 예상된다.

송하진 지사는 “동서가 막힘없이 통하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며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대한민국

새만금 2단계 개발전략 논의

새만금 전문가들은 새만금의 가장 큰 강점인 신재생에너지와 융복합된 산업·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내부 기반시설 조기 확충 등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종모)은 19일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기념한 릴레이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의 마지막 행사로 국토연구원과 함께 '새만금 2단계 개발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류승한 선임 연구위원은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토대로 그린산업을 위한 생태계를

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토의 균형축을 남북에서 동서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한 “동서발전을 바라는 우리의 강력한 목소리에 정부가 확실한 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지역에서는 교류를 확대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조성하고, 내부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이운석 부연구위원은 “도요타자동차가 계획 중인 우븐시티(woven city)와 같이 새만금에 그린수소, 인공지능, 미래형 모빌리티 등 첨단 신기술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미래 도시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 안소현 부연구위원은 새만금의 입지적 특성과 자원에 최적화된 관광사업으로 해양레저·승마·생태관광 등의 다양한 체험형 관광개발과 함께 스마트 인공정원 등 신재생에너지의 관광자원화를 제안했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